

‘최고의 기부자’ 약속 지킨 16년... 박현주의 347억 사회환원

(미래에셋그룹 회장)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 기부 장학생·사회복지사업에 쓰여 ‘따뜻한 자본주의’ 철학 내세워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그룹

“최고의 부자보다 최고의 기부자가 되겠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16년째 같은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말이 아닌 숫자로 쌓인 기록이다. 2010년부터 이어진 배당금 전액 기부는 올해로 누적 347억원에 달했다. 한 번의 결단이 아닌, 해마다 반복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미래에셋그룹은 6일 박 회장이 2025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받은 배당금 16억원을 전액 기부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는 ‘지속성’에 있다. 통상 기업인의 사회공헌이 실적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달리,

박 회장의 기부는 경기나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이어져 왔다.

시작은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 이듬해인 1998년 미래에셋육영재단을 만들면서다. 2년 뒤인 2000년 박현주 회장은 사재 75억 원을 출

연해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설립했다. 박 회장은 2008년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을 이 땅의 젊은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16년 동안 35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재단에 기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등 여러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이 약속은 단 한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벤트성 ‘기부’가 아닌 경영 원칙이자 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기부한 돈은 장학생 육성과 사회복지 사업에 쓰이고 있다. 장학사업의 슬로건은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이다. 2000년 5월부터 시작한 장학사업은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래에셋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자는 지난해 말 총 50만명을 넘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미래에셋희망재단의 누적 사회공헌 사업비는 2025년 말 기준 1127억원에 달한다. 단

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해외 연수, 글로벌 네트워크 경험 제공 등 ‘기회 확대’ 중심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수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과 청년 인재 육성 등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 회장의 행보는 미래에셋의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그룹은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자본이 축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왔다. 박 회장의 개인적 기부는 이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기부금의 사용처 역시 일관된다.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닌, 미래 경쟁력과 연결된 영역에 집중된다. 이번 기부금도 그룹 공익법인을 통해 인재 육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 회장의 기부는 방식에서도 확장되고 있다. 2023년에는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25%를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현금 중심의 기부에서 자산 기부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해당 기부는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 회장의 행보를 단순한 미담으로만 보지 않는다. 자본이 축적되는 방식뿐 아니라, 그 이후의 흐름까지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기업이 창출한 가치가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부 자체보다 중요한 건 16년 동안 한번도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자본시장 내에서 보기 드문 ‘일관성 있는 사회환원 모델’”이라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실적 기대감 솔솔... 삼전·하이닉스 주가 ↑

증권사 3곳, 목표주가 상향 조정 ‘지금 가장 저평가 구간’ 평가도

‘터보퀀트(TurboQuant)’ 충격에 흔들렸던 반도체 랠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자심리가 급반전되고, 시장의 시선도 불확실성에서 성장성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는 각각 3.71%, 3.78%씩 상승했다. 1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실적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도 1.14% 올랐다.

지난달 반도체주는 구금이 내놓은 메모리 압축 기술 터보퀀트 이슈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22.77%, SK하이닉스는 23.94%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터보퀀트의 등장을 오히려 시장 확대 기회로

보는 시각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역대급일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4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5.49%, 9.76%씩 상승했다.

이날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제시한 증권사 4곳 중 3곳이 눈높이를 올렸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증권사 중 최고가를 제시했다.

이 증권사 채민숙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0.7% 성장한 127조원, 영업이익은 648% 증가한 50조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인 37조원을 35% 상회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은 48조3000억원으로, 전사 영업이익의 약 96%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6년과 2027년 실적 전망치도 대

폭 상향했다. 1분기와 2분기 가격 상승을 상향을 반영한 올해 평균판매가격(ASP) 상승률 전망은 컨벤셔널 디램(DRAM)이 기존 186%에서 221%로, 낸드(NAND)는 기존 92%에서 248%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202조원에서 302조원, 2027년 277조원에서 392조원으로 올려잡았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호실적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6곳 중 4곳이 목표주가를 상향했으며, KB증권은 가장 높은 목표가인 17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8조1166억원, SK하이닉스는 31조562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투톱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합산치는 약 70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약 90조8000억원)의 76.7%에 해당한다.



ChatGPT로 생성한 ‘1분기 역대급 실적 전망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이미지.

장기적인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합산 영업이익은 382조3294억원 수준으로, 6개월 전 전망치인 96조7525억원보다 약 4배 상향된 수치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 증가의 가속 구간에 진입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실적상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지금이 가장 싼 구간”이라고 평가

했다. 이거 그는 “예상치를 웃돈 1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고객들은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선수금과 위약금 조항 등 구속력이 있는 계약 조건까지 제시하며 공급 확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불법 도박 대신 미래에 투자하세요”

한양증권, 청소년 보호 캠페인 동참



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가운데)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한양증권

한양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확산되는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사회적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이번 캠페인에서 ‘불법 도박 대신, 미래에 투자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인식 제고와 건전한 투자 문화 확산에 나섰다.

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 도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건전한 가치관과 금융 인식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거래소 “금현물 투자하면 골드바 기회”

계좌 개설·거래 고객 대상 이벤트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 키움증권과 함께 금현물 계좌 신규 개설 및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KRX금시장골드바를 잡아라’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금현물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와 기프트콘 등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 기간 중 금현물 계좌에서 10g 이상 매수한 고객에게는 10g 골드바(약 270만원 상당)를, 1g 이상 매수 고객에게는 3g 골드바(약 80만원 상당)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금현물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는 기프트콘(약 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장내 금현물 매매시장인 KRX금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 확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금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금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점도 반영됐다.

KRX금시장은 금을 주식처럼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매매차익 비과세, 한국조폐공사 인증 순도 99.99% 금지급 거래 등이 특징이다.

/신하은 기자

KB자산운용 AI 전력 인프라 ETF

KB자산운용은 오는 7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인프라 수요 증가에 투자하는 ‘RISE 미국AI전력인프라액티브 ETF’를 상장한다고 6일 밝혔다.

빅테크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자체 발전 설비를 발 빠르게 구축하고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자력,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전력 솔루션 도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RISE 미국AI전력인프라액티브ETF’는 이 같은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미국 전력 인프라 기업에 선별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다. /신하은 기자